

근현대미술사 족적... 대가들 작품 만나볼까

CULTURE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아일랜드 미술관 기획전 6월 27일까지

김보현 김영태 오승우 윤재우 진양욱 작가 평면회화 27점



오승우 작 '신록 新綠, 광주 양림동 풍경' (1949)

조선대학교 소장품 중에서 광주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끈 대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6일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아일랜드 미술관에 따르면 새 봄을 맞아 소장품 기획전을 지난 4일 개막. 오는 6월 27일까지 광주 근현대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김보현 김영태 오승우 윤재우 진양욱 작가 등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빛이 머문자리, 풍경의 속삭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평면회화 27점.

특히 이번 기획전은 지역과 함께하는 조선대의 교육 철학의 연장선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예술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다시금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소장품의 가치와 지역 미술의 깊이를 재조명하고 관람객들이 일상의 여유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김보현이 여행 중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풍경화와 오승우의 양림동, 마이산, 속리산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선보이고, 제2·3전시실에는 김영태 윤재우 진양욱 작가의 각기 다른 시각으로 지역 풍경을 해석하며, 자연과 예술이 어울어지는 깊이 있는 작품들이 출품됐다. 먼저 김보현 작가는 작품을 통해 1970년대부터

여행을 자주 다니며 즉흥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 속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독창적인 풍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김영태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구하며 목가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색감으로 자연을 감성적으로 재해석한 풍경화를 보여준다.

또 오승우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터치로 주로 남도의 섬, 바다, 들녘을 표현하고 한국적 정서를 담은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윤재우 작가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색채, 선적인 표현이 특징으로, 시대별로 다양한 화풍을 시도하며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로 개성적인 화면 구성을 보인다.

이외에 진양욱 작가는 다채로운 색면과 낙천적인 색채 표현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감각적인 작품을 볼 수 있다.

김보현 작가와 진양욱 작가는 조선대 교수를 역임했다. 김보현 작가는 조선대 미대 초대학장을 맡아 미대가 안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남도 구상 회단을 일궜다. 김영태 화가는 도시와 연결한 산야와 삶의 현장과 맞물린 포구, 순발력 있는 필치로 포착해낸 인물 등을 위주로 구상회화를 펼쳐 왔다. 또 오승우 화가는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이자 고 오승운

(1939~2006) 화백의 형으로 '전통의 근원에 대한 탐구' 및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상향의 추구'가 두드러졌으며, 윤재우 화가는 강건 최초의 서양화가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이들 작가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시선으로 지역의 풍경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 속에서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김보현&실비아아일랜드 미술관의 기획전 380여점을 포함해 총 1860여점의 소장품을 보유, 이를 통해 지역 미술의 가치와 흐름을 조명해 왔다.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그 안에 담긴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예술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조명한다.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아일랜드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 주제인 '빛이 머문자리, 풍경의 속삭임'과 같은 풍경이라도 작가의 시선과 표현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탐구한다"면서 "자연과 예술이 교감하는 다채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자연 세심하게 표현... 눈부신 생명력 노래

성명진 동시집 '밤 버스에 달이 타 있어' 6년 만에 출간...제4부 구성 61편 수록

벌써 네번째 권이다. '축구부에 들고 싶다'와 '걱정 없다 상우', '오늘은 다 잘했다' 등에 이어 성명진 시인이 동시집 4집 '밤 버스에 달이 타 있어'를 창비에서 최근 펴냈다.

이번 동시집은 자연의 생명력과 어린이의 몽글한 성장기를 더불어 포착해 낸 전작 '오늘은 다 잘했다' (창비 2019) 이후 6년 만이다.

맑고 정직한 눈으로 자연과 어린이의 생명력을 노래해온 시인은 은은하면서도 단단한 서정으로 어린이의 마음속 작은 파문까지 살뜰히 포착해 내는 동시에 현실에 굴하지 않고 단단하게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특히 동시의 근원에서 성심을 다해 길어 올린 '환하고 환한' 마음은 감동과 불화에 지친 아이들의 현실을 포근하게 위로한다. 시인은 여전히 작고 어린 것들에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내어 준다. 창가의 파꽃에, 담장 위의 덩굴장미에, 물 위의 소금쟁이에, 그리고 추운 날 홀로 버스 정류장에 앉은 어린이에게 눈길을 준다.

시인은 그들에게 건넨 순하고 다정한 말을 세심히 다듬는 것은 물론, 이번 동시집에서 좀 더 심지 끈은 언어를 버려 냈다.

동시 '읽사귀들'에서 '자주 웃어요 우리는/조그

만 일에도/팔랑거리면서요//즐거우니까요//꽃요?//에이./또 비교하려고 그러시네//꽃은 꽃이고/우리는 우리랍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알'에서는 '나는/갓 생겨나 알 속에/웅크리고 있습니다//좀 더 자라면/스스로 나가려고/껍질을 얇게 지었습니다//밖에서 아누나/함부로 깨뜨리라고/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에서는 '열음덩이를 빠져나온/물방울들/모여 소곤거린다//우리 일단/흐르자//흐르지 않고는/못 살겠다'라고 각각 읊고 있다.

시인은 자연과 어린이를 믿는다. 그들의 넘치는 생명력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전제로 답답하고 외로운 현실을 어린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멋지게 헤쳐 나가길 바라는 동시에 고유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연을 세심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농부'를 통해 '호박 씨이 돋았어요//이 작은 녀석./실은 힘이 장사랍니다/가을까지 큰 호박덩이 여러 개를/높은 언덕 위에 너끈히 올려놓지요//저는 이 일을/조금 거들어 주는 사람이고'라고, '쉬워요'를 통해 '누렇게 늙도록/일을 했군요 호박덩이 남//근대 그렇게 크고 둥그런 몸으로/높은 언덕배기에서/어떻게 내려오나?//아, 그거/어렵지 않아요//저 농부 남이 내려 주시지요/폼에 꼭 안아서요'라고 동심을 다독인다.

시인은 단지 자연과 동심에 대한 예찬에서 그치지 않고, 각박해진 현실 속 동심의 복원을 기원하



며 꽃뿔한 감각으로 무뎠던 감성의 복원을 갈구하는 등 자연에서 길어 올린 '환하고 환한' 동심에 근거해 지극한 마음으로 눈부신 생명력을 노래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해 힘든 현실을 너끈히 이겨내는 모습 역시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유강희 시인은 해설 '환하고 환한 것에 대한 무한 경외'를 통해 "꽃은 꽃이고 우리는 우리랍니다"라며 "천연스럽게 말하는 읽사귀들처럼 어린이가 자신의 존재이자 본성을 당당히 선언하도록 이끈다"고 평했다.

이번 동시집은 '자주 웃어요 우리는'을 비롯해 '호박덩이를 옮기는 밤', '함께 노래 부르면서', '저녁에 언덕을 넘어오는 것들' 등 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해온 동시 61편이 실렸다.

성명진 시인은 1993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 그동안 동시집 세권과 시집 '그 순간', '물대 환했다'를 선보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시대 이끈 '광주여성사' 도보투어로 만나

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길' 접수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두홍길·백단심길·홍단심길 등

도보투어를 통해 광주여성 백년의 역사를 만나는 '광주여성길'이 봄 시즌을 시작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광주여성길'을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여성길'은 2022년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 근대역사탐방로의 이름으로, 두홍길·백단심길·홍단심길 3코스의 도보투어를 통해 광주여성사를 조망하는 프로그램이다.

'길 위의 길, 발자국 위의 발자국'이라는 모토 아래 우리가 걷고 있는 수많은 길을 이미 걸었던 여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갔던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발자국을 기억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두홍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여성교육과 여성선교사를 주제로 하며,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에 투신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 걷는다. 홍단심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최초'의 근대적 직업을 가진 광주여성들의 발자취를 좇는다.

모든 코스에는 여성사와 성평등 관점, 여성 인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 등을 섭렵한 전문해



설사 21명이 배정돼 광주여성 근대 백년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준다.

광주여성길 도보투어는 지난해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전북 등 전국에서 92회에 걸쳐 972명이 참여했으며, 투어 만족도 또한 94점을 기록하면서 광주여성 역사문화 자원화에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코스마다 1시간 30분 소요된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포스터에 쿼일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광주여성길을 걷다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 속에 광주여성이 있고, 그 여성의 헌신과 열정으로 지금의 나와 광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광주여성들의 삶을 시민과 함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0-0532.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광주시향 '교향악축제 프리뷰' 선보여

내달 1일 광주예당 대극장...첼리스트 이상은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축제' 프로그램은 미리 만나보는 연주회가 마련됐다.

광주시향(예술감독 이병욱)은 393회 정기연주회 '2025 교향악축제 프리뷰'를 오는 4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주회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무대를 지역 관객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자리다. 광주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의 지휘 아래 첼리스트 이상은이 협연자로 나서며 프랑크 인상주의와 후기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아우르는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드뷔시의 '달빛'(Clair de Lune)으로 무대의 막을 연다. 드뷔시 특유의 몽환적 색채와 서정미가 돋보이는 이 곡은 원래 피아노 모음곡으로 작곡됐으나, 편곡을 거쳐 오케스트라로도 연주된다. 이어지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는 서정성과 극적 구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첼로 협주곡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첼리스트 이상은은 요한슨 국제콩쿠르 우승, 영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2위, 윤이상국제콩쿠르 1위를 거머쥐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영 콘서트 아티스트 멤버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을 펼쳤으며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페스티벌, 대관령국제음악제, 서울스프링스내악축제, 서울국제음악제 등 국내외 국제음악제에 참여하고 국내 주요 교향악단들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연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다. 웅장하면서도 치밀한 구조와 정서적 깊이를 지닌 이 작품을 통해 광주시향은 독보적인 해석과 탄탄한 앙상블을 선보이며 교향악축제에서 연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교생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 613-8241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드림미술관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 15일까지 시각예술 중사자 1명 선발

광주드림미술관은 역량있는 신진청년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젊고 패기 있는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조형 언어를 수용하며 이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는 광주 동구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광주시 출생이거나 거주 또는 광주시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이면 되고, 만 40세(1982년생) 이하이면 된다.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1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희망자는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포트폴리오와 함께 방문 또는 등기우편(광주시 동구 선촌길 6, 윤림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0일 오후 5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통지(문자연락)한다. 문의 062-223-6515.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